

시마네의 한국계 신사에 관한 일고찰

魯成煥*

This article is about the Korean shrines (except Silla) in Shimane prefecture. By examining the Korean shrine, three specific features can be found. First of all, the trace of the Baekje and Goguryeo was very rarely can be seen. However Gara and Gaya's influences are strongly left. Baekje influenced more in Buddhism and name of place by compare with the Silla. The shrines and temples were no relations with the Goguryeo. By comparison, Gara and Gaya shrines were bifurcated with the Aragaya and Daegaya, and widely spread with the different names. This feature is not by the nation, it is geographic feature that Shimane is facing with the Southern East Sea. Secondly, Gaya's migration routes can be found. As Itate(Gara) and Tsunugaarasito(Daegaya)'s routes tell us that migration were started from the northern Kyushu and Shimonoseki. Lastly, the originality of the shrine were depend on the embodiment of the God's name. In short, when the God's name were certain, it was kept in the present but when the name was uncertain, it was arranged in to Susanoo. These features were can be found in Korean shrines in Shimane prefecture.

Key words : Simane, Baekje, Goguryeo, Gara, shrine
(시마네, 백제, 고구려, 가야, 신사)

1. 머리말

일본신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시마네현(島根縣)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 이유는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대략 크게 천황계와 이즈모계로 구분하는데,

* 울산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전공: 역사민속학, 비교신화학.

후자에 속하는 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전자를 대변하는 천황계의 직계 선조신 아마테라스(天照大神)를 모신 이세신궁(伊勢神宮)이 이세(伊勢)에 있다면, 후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오호구니누시(大國主神)가 모셔진 이즈모대사(出雲大社)가 이즈모(出雲)에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이곳은 고대의 신사들이 즐비하게 많아서 흔히 신들의 고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흥미를 끄는 것 중의 하나는 이 지역에 한국과 관련된 신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예로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이하 『기기』로 생략함)에서 스사노오가 신라에서 이즈모로 건너가는 이야기, 『출운국풍토기(出雲國風土記: 이하 풍토기로 생략함)』에서 보이는 이즈모의 창세신이 신라에서 땅을 끌어가는 일, 그리고 가라가미시라기신사(韓神新羅神社), 가라가마신사(韓竈神社), 가라시마신사(韓島神社) 등 한국을 나타내는 이름을 가진 신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보는 관점은 대략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고대한국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한 역사의 흔적으로 보는 해석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수명의 연구인데, 그는 이상과 같은 신사들을 열거한 후, 이것들은 한반도의 남부지역 사람들이 시마네 지역으로 이주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¹⁾ 이처럼 신사를 통해 한국인들의 이주 역사를 보았던 것이다. 두 번째는 표착의 시선으로 보는 해석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가미 시즈히로(三上鎮博)의 연구인데, 그는 쓰시마해류를 타면 손쉽게 이곳에 도착한다는 경로가 이상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다.²⁾ 셋째는 고대무역의 표상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설은 서양학자 안데스 카르키비스트(Anders CARLLQVIST)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는 『기기』의 스사노오 신화에 주목한 다음, 그 신화는 스사노오가 많은 병사들을 신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병사들과

1) 金秀明(2011) 「島根のなかの朝鮮文化について」 『韓日語文論集(15)』 부산외대, p.153.

2) 三上鎮博(1974) 「山陰沿岸の漂着文化」 『東アジアの古代文化(秋)』 大和書房, p.87.

토기(상품)를 교환한 다음 일본해의 거대한 장거리 무역 시장인 이즈모 지역으로 가지고 온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³⁾

이상에서 보듯이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도 그것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는 각기 다르다. 그것이 바로 이주, 표착, 무역이라는 개념의 용어이다. 이 세 용어는 서로 닮아있으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주는 목적지가 있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표착은 바다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 경우를 말하며, 무역은 지방(국가)과 지방(국가) 간에 서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일을 말한다. 그리고 무역에는 이주와 표착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필자는 일본 시마네현의 한국관련 신사에 대해 이상의 세 가지 개념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여 모든 부분을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에는 당연히 이주와 표착 그리고 무역의 요소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자료로서 그것을 구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신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한반도의 어느 지역 사람들이 어떤 루트를 이용하여 시마네에 정착하였으며, 그 이후 어떠한 변용을 이루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 등에 관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신사들을 계통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필자는 일전에 이 지역의 신라와 관련된 신사와 신화를 살펴본 적이 있다.⁴⁾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신라를 제외한 모든 한국계 신사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스사노오와 가라구니이타테계의 신사

시마네에는 “가라(韓)”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름의 신사들이 많

3) Anders CARLLQVIST(2009) 「古代出雲と朝鮮半島 - 神話で描いている長距離貿易-」 『岩手縣立大學盛岡短期大學部研究論集(11)』 岩手縣立大學盛岡短期大學、p.18.

4) 노성환(2014) 「일본 시마네의 지역전승을 통해서 본 신라」 『동북아문화연구(3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439-455.

다. 이것은 분명히 한국계 신사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가라’란 고대국가 가야를 지칭한다기보다는 한반도 남부지역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스사노오(素盞鳴尊)를 주신으로 모시는 계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가라구니이타테(韓國伊太氏)를 모시는 주신으로 계열의 신사가 있다.

먼저 스사노오계에는 가라구리신사(嘉羅久利神社=佐久多社), 가라가마신사(韓竈神社), 가라구니신사(韓國神社), 가라메신사(漢女神社), 가라시마신사(韓島神社)가 있다. 가라구리신사는 야스키시(安來市) 히로세초(廣瀬町) 중심부에 있는 미카사야마(三笠山) 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현재의 제신으로는 스사노오, 가라구니이소타케(韓國五十猛命)를 모시고 있다. 제신의 이름에서 보듯이 이는 한국계 신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본전 건물의 편액에 「가라구리신사(嘉羅久利神社)」와 「사쿠다신사(佐久多神社)」라는 두 개 신사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신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된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본시 ‘가라(韓)’였던 것이 “가라(嘉羅)”로 바뀌어져 있다는 점이다. 신사 측의 설명에 의하면 원래 이 신사의 이름은 가라구니(韓國)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와전되어 중고시대에는 가라구리신사(加栗神社)로 바뀌었고, 또 이것이 오늘날에는 현재와 같은 이름으로 바뀐 것이라 한다.⁵⁾

이러한 변화는 신사에 모셔져 있는 신격에 까지 영향을 끼쳤다. 명치(明治) 이후 이 신사의 이름인 가라구리(加栗)는 실, 또는 태엽 등을 감아 물건을 움직이는 장난감 또는 기계장치를 의미하는 「가라구리(絡繰り)」라는 말로 변화되었다. 그에 따라 지금은 한국과 거리가 먼 기계와 기술의 신으로 숭상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원래 한국을 의미했던 “가라구니”가 기계장치를 의미하는 말로 변질되어있는 것이다.

가라가마신사는 히라다시(平田市) 가라가와초(唐川町) 아토노(後野)에 있으며, 현재의 제신은 스사노오와 구니노사즈치라는 신

5) 江原護(2000) 『出雲の神々に魅せられて - 出雲の古代を歩く -』マイブックス社、p.25.

이다. 이 신사는 원래 이곳에 있지 않았다. 과거에는 히가와군(簸川郡) 와니부치무라(鰐淵村) 오오야자(大字) 가라가와(唐川)에 있었다고 하며,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은 1815년(文化12)의 일이며, 1872년(明治5)에는 촌사(村社)가 되었다고 한다.⁶⁾ 현재 이 신사는 산등성이를 따라 정상을 향해 한참 올라가면 커다란 암굴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암굴에 대해 1717년 마츠에번(松江藩) 사무라이 구로자와 나가히사(黒澤長尙)가 편집한 『운양지(雲陽誌)』에는 “스사노오가 타고 온 배로 두 칸(二間) 4방(四方) 정도의 편편한 바위가 있으며, 이를 「암선(岩船)」이라 한다. 이 바위는 본 신사의 위쪽으로 지붕과 같이 걸쳐있어 비와 이슬을 맞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옥방석(屋方石)」이라 한다. 또 암선 옆에는 돌레가 2장(二丈) 정도이고, 높이는 6칸(六間) 정도의 통나무와 바위가 서 있다. 이를 「범주석(帆柱石)」이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 지역 전승에는 큰 바위를 범주암(帆柱岩)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비록 이 신사가 산의 높은 곳 암굴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신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온 것을 상징이라도 하듯이 모든 설명이 바다의 운송수단인 선박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 신사의 창건연대는 미상이지만 기록상으로는 일찍부터 보인다. 8세기 문헌인 『풍토기』에는 가라가마샤(韓鎗社)로 되어있고, 또 10세기의 문헌인 『연희식(延喜式)』의 「신명장(神名帳)」(이하는 줄여서 연희식로 함)에는 「가라가마신사(韓竈神社)」로 표기되어있다. 이 신사에서 발행한 「유서서(由緒書)」에 의하면 “가라가마는 한국에서 도래한 가마 솥(釜)을 의미하며, 이것은 스사노오가 자식들과 함께 신라에서 건너와 일본에 「식림법(植林法)」을 전함과 동시에 철기문화를 개척했다고 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 신사의 후방에 위치한 호쿠산산케이(北山山系)의 산에서는 고대로부터 구리를 생산한 지대이며, 그와 관련된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신사는 철기문화의 개척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

6) 瀧音能之(2014) 「古代出雲と朝鮮半島における交流の實態 - 神社を手がかりとして -」 p.4. 이는 2014년 넷트상에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고 서술되어있다.⁷⁾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가라가마에 대한 해석이다. 즉, '가라'를 한국, '가마'를 솔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효운은 '가라'는 한국 중에서도 가야를, '가마'는 취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곳에 모셔진 신은 가야의 부역신(조왕신)을 모신 신앙의 흔적으로 해석했다.⁸⁾ 이에 비해 일본의 타키오토 요시유키(瀧音能之)는 '가라'를 한국, '가마'는 벼를 베는 낫으로 해석했다.⁹⁾ 즉, 「한국에서 만든 낫」이라는 의미를 가진 신사의 이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가마'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솔과 낫은 모두 철을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이 한국계 제철집단의 거주지이자, 구리를 생산했던 유적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마'는 용광로를 의미하는 가마(窯)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이곳에 모셔졌던 신은 스사노오가 아니라 제철과 관련된 고대 한국의 신이었음에 틀림없다.

가라구니신사는 이즈모반도(出雲半島)의 히노미사키신사(日御碕神社)의 경내 뒤편 산 쪽에 위치해 있는 작은 사당이다. 명치초기까지는 이 산의 중턱에 서쪽으로 향해 있었으나, 1996년 어느 독지가의 발원에 의하여 현재의 위치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히노미사키신사는 『출운국풍토기』에 의하면 신라의 미사키에서 땅을 끌어다 붙였다는 곳에 세워진 신사이다. 신사가 발행한 「유서서」에 의하면 이곳에 모셔진 신이 스사노오, 이소타케라고 한다. 이 신들이 이곳에 진좌한 유래는 불분명하지만, 신사의 이름이 가라구니이고, 또 배후의 산이 한국산(韓國山)이라는 사실로 보아 이 신사 또한 한국 계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가라시마신사는 오오다시(大田市) 오우라항(大浦)의 인근 가라시마(韓島)라는 섬에 있는 신사이다. 이 주변에 가라사키(韓崎), 가라우라(唐), 가라코야마(唐郷山) 등 한국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보이고,

7) 江原護(2000) 앞의 책, pp.31-32.

8) 정효운(2002) 「日本の中の加耶文化」 『일본학보(51)』 한국일본학회, p.533.

9) 瀧音能之(2014) 앞의 논문, p.4.

또 가라가미시라기신사(韓神新羅神社)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으로 보아 이곳도 고대한국인들이 일찍부터 정착한 곳으로 보인다. 가라시마는 둘레가 약 800미터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섬으로 노송이 무성한 무인도이다. 이곳에도 스사노오를 모신 가라시마신사가 있다. 지역의 전승에 의하면 스사노오의 일행들이 타고 온 배가 섬이 되었다고도 하고, 또 스사노오가 “한국으로 왕래할 때 이 섬에 배를 묶어두고 풍광을 즐겼다”고도 하며, 스사노오가 “한국에서 건너올 때 이 섬에 잠시 휴식한 곳”이라는 전승도 있다.

이 신사의 신은 항해안전을 보장하는 신격으로 신앙되었다. 그리하여 에도(江戶)시대에는 오모리 은광(大森銀山)의 대관(代官)이 제물을 바쳐 항해안전을 빌었다. 지금도 그러한 신앙이 지켜지고 있다. 그 증거로 매년 7월 24일이 되면 제의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 때는 풍어기(大漁旗)를 높이 걸고 타쿠노 어업진흥회(宅野漁業振興會)의 어선들이 선상 퍼레이드를 벌이며, 해상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이 제의행사에 참여한 니마초(仁摩町) 문화재전문위원장 후지마 히도쿠(藤間比德)씨(당시 77세)는 이 섬은 “대마도에 오징어잡이를 갔다가 돌아올 때 좋은 등대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라시마는 대마도와 연결하는 해상표시와도 같은 곳이었다. 해상안전의 기원장소로서 활용되었던 것은 바로 이같은 지형적 특징에서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곳이 쓰시마해류를 타고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고대 항로에 있어서 중요한 항구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 가라계 신사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스사노오를 주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많다는 점이다. 원래 이들은 스사노오를 모시는 신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스사노오는 중앙에서 만들어진 『기기』의 신으로 정작 『풍토기』에서는 그다지 활약하는 신이 아니다. 따라서 이 신사들이 스사노오를 주신으로 모시는 것은 훗날 윤색되어진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신사들이 스사노오로 흡수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신사명이 구체적인 지명이 아닌 외국을 의미하는 막연한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근거를 찾게 되면 『기기』에서 이즈모와 관련성을 가지고, 또 신라(외국)에서 건너온 신으로 되어있

는 스사노오와 결합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것이다.

한편 이즈모에는 특히 가라구니이타테(韓國伊太氏)라는 이름을 가진 신사가 많이 눈에 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히가와군(簸川郡) 히가와초(斐川町) 가미나가(神永)에 위치한 소기노야신사(曾根能夜神社) 내 가라구니이타테신사이다. 이 신사는 『연희식』에 소기노야신사와 함께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소기노야신과 함께 동거했음을 알 수 있다. 신사 측이 발행한 「유서서」에는 제신인 소기노야신사의 제신이 기히사가미다카히코(伎比佐加美高日子命)인데, 이 신은 “지역 일대를 지키는 수장신(首長神)이며, 이즈모대신(出雲大神)의 제주(祭主)”라고 설명한 한편, 가라구니이타테신사에 대해서는 “제신은 스사노오, 이소타케(五十猛命)이며, ‘가라구니(韓國)’라는 명칭 그리고 ‘가라노소호리’라는 별칭에서 고대 이즈모와 한국이 깊은 교류의 역사를 알 수 있다”¹⁰⁾고 설명되어있다. 즉, 가라구니이타테신사의 제신은 가라노소호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신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가라’는 한국, ‘소호리’는 서벌, 서라벌과도 통하는 서울의 옛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신은 “한국의 서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신이었던 것이다.

둘째는 야즈카군(八東郡) 신지초(宍道町)에 위치한 혼구신사(本宮神社)의 경내에 있는 가라구니이타테신사이다. 향토사가 에바라 마모루(江原護)에 의하면 현재 이곳에는 그러한 신사가 남아있지 않으며, 또 혼구신사에서는 1984년에 두 명의 배사신(配祀神)을 모신 각각의 사당을 없애고 새롭게 사쿠다신사(佐久多神社)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¹¹⁾ 그렇다면 필시 그 중 한 곳이 가라구니이타테신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과거에는 존재하였지만 현재에는 사라진 가라구니이타테계 신사도 있다.

셋째는 야즈카군(八東郡) 타마유초(玉湯町) 타마츠클리(玉造)에 있는 타마츠클리유(玉造湯) 신사의 경내에 있는 가라구니이타테신사이다. 타마츠클리유신사는 『풍토기』의 오우군(意宇郡) 조에 신기관(神祇官)이 있는 타마츠클리샤(玉作湯社)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10) 江原護(2000) 앞의 책, p.28.

11) 江原護(2000) 앞의 책, p.23.

만, 가라구니이타테신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연희식(延喜式)』에서는 “玉作湯神社 同社坐韓國伊太氏神社”라 기록되어있다.¹²⁾ 이처럼 『연희식』이 편찬되던 10세기 초에는 가라구니이타테신사가 타마츠클리유신사와 함께 같은 장소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곳에는 타마츠클리유신사만 있을 뿐 가라구니이타테신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 재일작가 김달수는 경내에 기가라시신사(記加羅志神社)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이것이 원래는 가라구니이타테신사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하기도 했다.¹³⁾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름을 바꾸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셋째는 이즈모군(出雲郡)에 있는 아즈키신사(阿須伎神社) 경내의 가라구니이타테신사이다. 이곳 가라구니이타테신사도 제신은 이소타케이다. 아즈키신사는 언제 창건되었는지 분명치 않고, 『풍토기』에는 「아즈키샤(阿受伎社)」로 표기되어있는 이즈모대사의 섭사(攝社)이다.

다섯째는 히가시이즈모(東出雲)에 있는 이야신사(揖夜神社) 경내의 가라구니이타테신사이다. 이야신사는 『풍토기』에는 「이후야샤(伊布夜社)」, 『연희식』에는 「이야신사」로 되어 있으며, 주신은 이자나미로 되어있다. 이곳의 가라구니이타테신사는 눈에 띄는 곳에 있지 않다. 본전의 옆으로 놓여진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조그마한 사당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가라구니이타테신사이다.

여섯째는 이즈모신사(出雲神社)의 경내에 있는 가라구니이타테신사라 하는데, 이 신사의 소재지는 현재 불분명하다.

이상에서 본 가라구니이타테신사는 이즈모에 국한하여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신의 고향은 이즈모일 가능성이 높다. 재일의 고고학자 전호천(全浩天)은 아무런 예증도 없이 이 신사들은 신라계라고 했다.¹⁴⁾ 아마도 이것은 이타테를 스사노오의 아들 이타케루(五十

12) 金達壽(1983) 『日本の中の朝鮮文化(7) - 出雲、隱岐、石見(島根縣)<2>-』 『季刊 三千里(36)』 三千里社、p.246에서 재인용.

13) 金達壽(1983) 앞의 글、p.247.

14) 全浩天(1995) 『古代出雲における高句麗 新羅文化の重層性』 『日本古代の伝承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p.371.

盟)으로 보고, 그들이 신라에서 이즈모로 건너가는 『일본서기』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타테가 이타케루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신불리 신라계로 단정 짓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 독립된 신사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신들이 모셔지는 신사의 경내에 섭사(또는 말사)로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다른 신들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호천은 “한국계 신들이 이주하여 그대로 모셔지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거부당하여, 상전(相殿) 또는 섭사(攝社)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율령국가권력에 의해 이즈모와 그곳에 정착한 외국신이 종속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¹⁵⁾ 그러나 이 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현상이 많은 한국계 신사들 가운데 유독 이 신사들에게만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라구니이타테신사는 일찍부터 학계의 관심이 높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센케 토시자네(千家俊信: 1764-1831)는 1843년(天保14) 그가 쓴 『출운국식사고(出雲國式社考)』를 통하여 이 신사는 “이타케루(五十猛命)를 모시는 신사를 말하며, 한국이란 말은 앞에 붙는 수식어이다.”라고 하면서 이타케루가 신라에서 건너왔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예를 들면서 「테(氏)」는 「기(氣)」와 같기 때문에 「이타테」는 「이타케루」에서 와전된 것으로 해석했다.¹⁶⁾ 이에 비해 이시즈카 다카토시(石塚尊俊)는 한국과 이즈모의 교류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고,¹⁷⁾ 또 고대사학자 우에다 마사아키(上田正昭)는 이 신이 독립된 신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주신(主神)이 아닌 “객신(客神)”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¹⁸⁾ 그리고 최근 타키오토 요시유키는 이 신사가 『풍

15) 全浩天(1995) 앞의 논문, p.371.

16) 谷川健一編(2000) 『日本の神々－神社と聖地(7)－』〈谷川健一編〉白水社, p.47에서 재인용.

17) 石塚尊俊(2000) 「韓國伊太氏神社について」 『日本の神々－神社と聖地(7)－』〈谷川健一編〉白水社, p.48.

18) 上田正昭(1998) 『論究・古代史と東アジア』岩波書店, pp.201-202.

토기』에는 보이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이 신사들은 『풍토기』 성립 이후 733년(天平5)에서 905년(延喜5) 사이에 생겨났을 것이며, 그 시기는 일본과 신라의 관계가 악화되어있었으며, 그에 따른 신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867년(貞觀9)경 이즈모(일본)를 지키기 위해 건립된 신사라고 보았다.¹⁹⁾ 이처럼 입장에 따라 설명이 각기 다르지만, 이들의 주장들은 한국에서 이주한 신이냐 아니면 신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모신 신이냐 하는 점에 초점이 집중되어있다.

특히 그 중에서 후자의 견해는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신라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신사들이 우리의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야마구치(山口), 토티리(鳥取) 등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사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즈모 지역에 국한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신은 신라의 공격을 막기 위한 신이 아닌 한국에서 건너간 이주의 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을 지닌다 하겠다.

그렇다면 가라구니이타테의 정체는 무엇일까? 가라구니는 말 그대로 한국을 가리키는 말이며, 신의 이름은 이타테이다. 앞서 센케는 이타케루로 보았는데, 이것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이타케루가 『일본서기』에 의하면 스사노오의 아들로 부친 스사노오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신이며, 스사노오와 항상 짝을 이루어 활동하고 있는 신이다. 그리고 스사노오가 원래 이즈모지역의 토착신이 아니라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들은 훗날 중앙의 신들이 이즈모로 진출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된 신이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이 신들이 이즈모 지역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가라구니계 신들이 정착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타테가 비록 이타케루와 유사한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동일신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타테는 누구란 말인가?

여기에 대한 단서가 이와미(石見) 오우라의 이소타케신사(五十猛神社)에 있다. 이곳은 이타케루를 모신 곳이지만, 현지인들은 이타케루라 하지 않고 이소타케라 한다. 즉, ‘이소’가 강조되어있는 것이다. ‘이소’는 규슈 북부 고대국가인 이토(이소)국을 가리키는 말

19) 瀧音能之(1995) 『出雲世界と古代の山陰』 名著出版、pp.303-305.

이다. 그곳은 한반도의 고대국가 이서국에 뿌리를 둔 이민국가이며, 그 수장이 이토테(五十跡手)였음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²⁰⁾ 이들의 세력은 북 규슈에서 야마구치의 시노모네세키 일대에 이르기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므로 인근의 시마네까지는 쉽게 진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토테는 이타테로 변하고, 또 기존의 가라구니의 세력과 합쳐짐에 따라 가라구니이토테신사가 탄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허용된다면 이 신사는 규슈 북부의 이토국 세력이 시모노세키에 거점을 두고서 일본해를 따라 동쪽을 진출함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가야와 아라가야 및 대가야계의 신사

시마네에는 가야계 신사들도 많이 눈에 띈다.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는 출처가 애매모호하지만 가야라는 이름을 흐릿하나마 남기는 경우이고, 둘은 가야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뚜렷하게 흔적을 남기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전자는 어느 가야를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점이 있고, 후자는 그 원류를 비교적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겠다. 이 점을 고려하여 가야계 신사들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야라는 이름만을 흔적으로 남긴 신사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츠에시(松江市) 사카모토초(坂本町)에 있는 **히가야사(比加夜社)**이다. 이 신사도 『출운국풍토기』에 나오는 오래된 곳이다. 『구지전촌지(旧持田村誌)』에 의하면 원래는 사카모토촌(坂本村) 내자(內字) 카타모리(片森)라는 곳에 있었으나, 관문연간(寛文年間: 1661-1673)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되어있다. 현재 이 신사의 제신은 후키아에즈(葺不合尊), 토요타마히메(豊玉比賣尊), 타마요리히메(玉依比賣尊)로 되어있다. 원래 이들은 이곳의 제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들은 그들의 이름에서 보듯이 후세에 『기기』

20) 노성환(2014) 『일본신화에 나타난 신라인의 전승』 민속원, pp.17-30.

의 영향으로 신사명인 '가야(加夜)'를 지붕을 잇는 식물인 새 또는 띠(茅. 萱)로 해석한 결과이다. 『기기』에 의하면 토요타마는 새로 지붕을 다 잇기도 전에 산실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후키아에즈이며, 후키아에즈를 양육한 자가 타마요리히메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제신들은 『기기』의 영향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에 모셔졌던 원래의 신은 신사의 이름에서 보듯이 '가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을 지닌다. 여기서 가야라 함은 한반도 고대국가 가야를 지칭하는 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가야의 신을 모셨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기기』의 제신으로 바꾸고 또 성격도 바꾸었다. 『운양지』에서 보듯이 18세기에는 가옥의 지붕을 잇는 신으로 숭상되었고, 오늘날에는 다시 한번 변화되어 출산과 관련하여 임신부를 보호하고, 안산을 보장하는 가정적인 신으로 되어있다.

둘째는 아라가야의 흔적이 남아있는 신사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세 곳에 있다. 즉, 타키초(多伎町)의 가야샤(加夜社), 히에바라초(稗原町)의 이치모리신사(市森神社) 그리고 히가시이즈모초(東出雲町)의 아다가야신사(阿太加夜神社)이다.

가야샤(加夜社)의 유래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은 『풍토기』에 보인다. 그것에 의하면 카무도군(神門郡) 타키코(多伎郷)라는 지명의 유래를 “천하를 만든 대신(大神)의 자식인 아다가야누시타키키히메(阿太加夜奴志多岐喜比賣命)가 있으므로 이곳을 타키(多吉)라고 했고, 726년(神龜3)에는 글자를 타키(多伎)로 바꾸었다”²¹⁾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타키에는 아다가야누시타키키히메라는 긴 이름을 가진 신이 있었다. 이 신을 모신 곳이 가야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신의 이름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한명이 아니라 두 명의 이름이 복합되어있는데, 하나는 아다가야누시이고, 또 하나는 타키키히메이다. 먼저 아다가야누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향

21) 荻原千鶴訳(1999) 『出雲國風土記』 講談社、p.226.

토사가 가토 요시나리(加藤義成: 1905-1983)는 '아다가야'를 '아다가이(出雲郷)로, '누시'를 주인 또는 지배자로, '타키'는 지명으로 보고, 이 신은 처음에는 오우군(意宇郡)의 아다가이의 수호신이었던 것이 훗날 타키에 진좌하여 타키키샤(多伎杵社)의 제신이 된 것이라고 해석한 적이 있다.²²⁾ 그러나 『풍토기』의 오우군을 보면 모리코(母理郷), 야시로코(屋代郷), 다테누이코(楯縫郷), 야스키코(安來郷), 야마구니코(山國郷), 이이나시코(飯梨郷), 토네코(舎人郷), 오호쿠사코(大草郷), 야마시로코(山代郷), 하야시코(拝志郷), 시시지코(宍道郷)의 11개 지역만이 기술되어있을 뿐, '아다가이코'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즉, 『풍토기』가 성립한 733년(天平5) 당시 오우군에는 '아다가이코'라는 지명은 없었다. 따라서 '아다가야'를 '아다가이'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풍토기』의 오우군의 신사와 사찰 항목에는 아다가야와 동일한 이름의 아다가야샤(阿太加夜社)라는 신사의 이름은 보인다.²³⁾ 이것으로 보아 타키에 모셔진 아다가야누시도 이 신사의 이름과 같은 '아다가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타키 오토 유시유키는 매우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즉, '아다'는 외국 또는 다름을 의미하고, '가야'는 고대 한국의 가야를, '누시'는 주인으로 보고, 이 신의 이름은 「외국 가야의 지배자」로 보았던 것이다.²⁴⁾ 이 설은 역사언어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닌 6개의 나라로 구성된 연맹체 국가였다. 그러므로 단순히 가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지명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다가야'이다. 아다가야와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가야국가들 중에는 아라가야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다가야는 아라가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렇다면 아다가야누시는 아라가야의 지배자라는 뜻을 가진 신의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신은 아라가야인들이 숭상했던 신이었던 것이다.

22) 加藤義成(1987) 『修訂 出雲國風土記參究』 今井書店、p.169、p.361.

23) 荻原千鶴訳(1999) 앞의 책、p.65.

24) 瀧音能之(2014) 앞의 논문、p.7.

한편 타키키히메의 ‘타키’는 폭포를 의미하는 ‘타키’로 해석하는 이도 있지만, 『풍토기』의 기록 그대로 본다면 지역명 타키(多吉, 多伎)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히메’는 여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신은 타키에 본래 있었던 토착의 여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이 본다면 가야샤는 아라가야에서 이주한 세력과 기존의 토착세력을 아우르는 신앙을 가진 신사임을 알 수 있다. 즉, 아다가야누시라는 가야의 남신과 타키키히메라는 토착의 여신을 부부와 같이 두 명의 신명을 합쳐 하나의 신으로 만든 이름이 「아다가야누시타키키히메」였던 것이다.

이 신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1683년에 마츠에(松江)의 번사(藩士)였던 키시자키 사쿠지(岸崎左久次)가 펴낸 『풍토기초(風土記鈔)』에는 가야샤는 가야토(加夜堂)가 되어 있고, 『운양지』에는 “본존은 아미타불이다. 후자는 말하기를 이 신사는 『풍토기』에 실려 있는 가야샤이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신불습합에 따라 ‘사(社)’가 변하여 불각(佛閣)이 되었다. 지금의 가야토는 아다가야누시타키키히메가 진좌해 있다. 언제부터 부처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서술되어 있다.²⁵⁾ 이처럼 가야샤는 시대의 추이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여 신불이 습합된 형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이름은 바꾸었지만 이러한 아다가야누시타키키히메를 모신 신사가 바로 히에바라쵸 이시하타(石畑)에 있는 **이치모리신사(市森神社)**이다. 세키오토에 따르면 19세기 이후 앞에서 본 가야샤(加夜社)가 신불습합의 의해 그 실태가 모호해지자, 이 신사를 가야샤로 비정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로 이 신사가 아다가야누시타키키히메가 가야리(加夜里)의 가야쇼(加夜床)라는 곳에 진좌한 것이 가야샤의 시작이며, 이것이 이치모리신사의 기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신사의 부근에는 가야하라(加夜原), 다가야(檜加夜), 가야가마루(加夜丸)라는 신사도 있다고 한다.²⁶⁾

그리고 히가시이즈모쵸 아다가이(出雲郷)에 있는 **아다가야신사**

25) 金達壽(1984) 『日本の中の朝鮮文化(8) - 出雲, 隱岐, 石見(島根縣) <3> -』 『季刊 三千里(37)』 三千里社, p.245에서 재인용.

26) 瀧音能之(2014) 앞의 논문, p.9.

(阿太加夜神社)는 신사의 이름에서 보듯이 아라가야의 흔적을 오늘날까지 가장 뚜렷하게 남기고 있다. 이곳에서 모셔지는 신도 앞의 경우와 같이 아다가야누시타키키히메이다. 이 신사도 『풍토기』에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8세기 이전부터 있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59년(貞觀元) 7월 11일에는 정오위하(正五位下)로 인정받았고, 본전을 비롯한 몇 개의 건물들은 1695년(元祿8) 3월 23일 이즈모의 영주 마츠타이라 츠나치카(松平綱近: 1659-1709)에 의해 조영된 이래 대대로 영주들에 의해 수리와 보수가 병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아라가야의 남신과 토착의 여신을 합친 아다가야누시타키키히메가 타키초와 히에바라초, 히가시이즈모초의 일대에서 신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라가야계로서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예가 **아야메신사(漢女神社)**이다. 이 신사는 오오다시(大田市) 가와이초(川合町)의 모노노베신사(物部神社)로 들어가는 큰 길 입구 쪽에 위치해 있다. 신사의 이름에서 보듯이 ‘아야메’ 또는 ‘가라메’라 불리는 여신을 제신으로 모시고 있다. 별명은 타쿠하타치지히메(栲幡千千姫命)이다. 이 신명 중 아야메와 가라메는 이를 아야가라가 되는데, 한반도의 고대국가인 아라가야를 일본에서는 아야가라(安耶加羅)라고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신도 아라가야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인 타쿠하타치지히메는 「북나무 껍질로 베를 짜는 여신」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 여신은 아라가야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베짜는 기술을 전해준 여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대가야계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코즈시(江津市)의 ‘아라시토상’이라는 사당과 오오다시(大田市)의 오오이히코노미코토신사(大飯彦命神社)이다. 전자는 이이다(飯田)라는 마을주민들로부터 ‘아라시토상’이라고 친숙하게 불리는 사당이다. 마을 노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신은 옛날 나가토(長門)에 도착하였으나 토착의 호족인 이토츠히코에게 방해를 받아 일본해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와미의 쓰노사토에 소를 이끌고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여 현인신(現人神)으로 모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끌고 왔던 소가 죽자 묘석을 놓고 정성껏 장례를 치렀으며, 그 묘석은 소

의 영석(靈石)으로 오늘날 사당의 옆에 안치했다고 전해진다.²⁷⁾

이들이 말하는 아라시토상이란 어떤 신일까? 그는 고대의 문헌 『일본서기』의 수인천황 조에 나온다. 그것에 의하면 그의 본명은 쓰누가아라시토이며, 대가야국의 왕자로 되어있다. 그가 일본으로 가게 된 연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승천천황 때 이마에 뿔이 나있는 사람이 배를 타고 코시노쿠니의 케히우라에 도착했다. 그리하여 그곳을 쓰누가라 한다. “어디의 사람인가?” 하고 묻자 “대가라국의 왕자 쓰누가아라시토, 또 다른 이름은 우시키아리시치칸키라고 한다. 일본에 성왕이 있다는 것을 듣고 왔다. 아나토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의 이도츠히코가 나에게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나의 땅에 두 사람의 왕이 있을 수 없다. 다른 곳으로 멋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내가 주의를 기울여 그 사람의 뿔뿔이를 보고 이 사람은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나왔다. 그러나 길을 몰라 시마우라로 걸어가서 북해에서 돌아 이즈모를 거쳐 여기에 왔다”고 했다. 이 때 천황이 죽었다. 그리하여 그곳에 머물며 수인천황에게 3년을 봉사했다.²⁸⁾

위의 내용에 의하면 그의 외모는 이마에 뿔이 나 있는 특이한 모습으로 묘사되어있다. 그의 이름인 쓰누가아라시토도 뿔과 관련이 있다. 즉, 쓰누가는 뿔을 의미하는 ‘쓰노(角)’에서 기인하는 말로 ‘가’는 ‘의’, 그리고 ‘아라시토’는 있는 사람 “아루히토”를 말한 것이라면 쓰누가아라시토는 뿔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마에 뿔이 나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병도는 쓰누가(都怒賀)는 고구려의 관인 소골(蘇骨)과 관련이 있다고 했으며, 김사엽은 曷, 我, 鹿은 갓(冠)을 나타내고, 또 都怒, 蘇那 등은 그 뒤 ‘敦’자로 쓰면서 ‘쓰루’, ‘두루’로 읽고 있으니 이 말은 위쪽이 가느다랗고 아래쪽이 불룩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말로 한일 양국어가 서로 대응된다고 하면서 이를 뿔로 만든 갓

27) 山藤朝之(2012) 『二宮の歴史と昔話』 個人出版、pp.32-33.

28) 宇治谷孟訳(1990) 『日本書紀(上)』 講談社、pp.135-136.

으로 해석했다.²⁹⁾ 그리고 고령의 향토사가인 김도윤씨도 이를 가야금판의 부속 장식 우두형 장식으로 해석했다.³⁰⁾ 즉, 그것은 실제의 머리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의 형상을 보고 지역사람들이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쓰누가 아라시토는 소머리 형태의 장식품이 달린 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우두형의 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는 가야의 지배자에 속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인물이 일본으로 건너갈 때 먼저 아나토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이토츠히코를 만났으나 실망하여 걸어서 시마우라로 갔으며, 또 다시 그곳에서 이즈모를 거쳐 케히우라에 도착하였다는 것이다. 아나토는 지금의 나가토(長門)를 말한다. 이곳은 현재 야마구치현(山口縣)의 북서부에 있는 곳으로 인근에는 오늘날 부산과 일본을 연결하는 관문역할을 하는 시모노세키가 있다. 지형 상으로 보더라도 그곳은 한반도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 대가야국의 왕자 쓰누가아라시토는 바로 이곳에 처음 도착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곳을 떠나 이즈모로 갔다. 이곳에서도 정착하지 않았다. 다시 이동을 하여 최종적으로 케히우라에 도착하여 그곳에 정착하였으며, 현재 그곳에 위치한 케히신궁(氣比神宮)에는 그를 신으로 모신 신사가 있다. 즉, 아라시토는 일본에서 신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케히우라는 현재 후쿠이현(福井縣)의 쓰루가(敦賀)를 말하는데, 이 지명의 유래도 쓰누가아라시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서기』에서는 대가야국 왕자 아라시토가 일본으로 이주하는 경로가 아나토-이즈모-쓰루가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이다 마을의 전승은 그가 이이다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오오타(太田)에도 있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오오이히코노미코토 신사(大飯彦命神社)이다. 지역민들에 의하면 이 신사에서 이이다 마을에서 쟁기를 빌려갔는데 돌려주지 않았다 한다. 아마도 쟁기의

29) 김사엽(1991) 『北陸의 韓문화』 『일본학(10)』 동국대일본학연구소, pp.232-233.

30) 김도윤(1997) 『고령입나와 일본교류연구』 가야문화연구소, p.123.

이야기는 이이다와 오오타의 마을 간에 아라시토라는 신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이러한 전승과 신사가 코즈시에 남아있다는 것은 『일본서기』가 미처 기술하지 못한 경로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이다 지역민들의 말처럼 그는 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서기』는 그것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전승을 다음과 같이 서술해 놓았다.

또 어떤 설에 의하면 처음 쓰누가아라시토는 나라에 있었을 때 황우에 농기구를 싣고 시골로 갔다. 그런데 그 소가 갑자기 없어졌다. 추적을 해보았더니 발자국이 어떤 마을 한 가운데 있었다. 한 노인이 말했다. “네가 찾고 있는 소는 이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마을 관리가 말하기를 ‘소가 지고 있는 물건으로 보면 반드시 잡아먹으려는 것이다. 만일 주인이 오면 물건으로 보상하기로 하자’며 잡아먹었다. 혹시 소의 대가로 무엇을 바라는가 하고 물으면 채물을 탐하지 말라. 마을에 모시는 신을 갖고 싶다고 하라.”고 일러 주었다. 얼마 후 마을 관리가 와서 말했다. “소의 대가로 무엇을 바라는가?” 그 말을 들은 그는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다. 그 마을에서 모시는 신은 하얀 돌이었다. 그 하얀 돌을 소 대신으로 받은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잡자는 방에 두었더니 그 돌은 어여쁜 처녀가 되었다. 아라시토는 대단히 기뻐하며 부부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라시토가 조금 떨어져 있는 틈을 타서 처녀는 사라지고 말았다. 아라시토는 크게 놀라 아내를 찾았다. 아내는 “동쪽으로 갑시다.”고 한다. 그 뒤를 쫓아 가보니 바다 건너 일본으로 들어갔다. 찾아 헤매던 그 처녀는 나니와에 가서 히메코소 신사의 신이 되었다. 또 토요쿠니의 쿠니사키에 가서 히메코소 신사의 신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신은 두 군데에서 모셔지고 있다.³¹⁾

이상의 설화는 소를 잃어버리고, 노인의 도움을 받아 그 소를 잡

31) 宇治谷孟訳(1990) 앞의 책, pp.136-137.

아먹은 집을 찾아내고, 또 소를 잡아먹은 사람으로부터 흰 돌을 얻고, 그 흰 돌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쓰누가아라시토의 아내가 되고, 또 아내가 일본으로 도망쳐 그 뒤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소를 매개로 하여 아내를 만났으며, 아내의 일본행으로 말미암아 도일을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적 배경이 이이다의 지역전승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즉, 아라시토상은 소를 데리고 와서 농경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 소가 이이다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이를 정성스럽게 땅에 묻고 그 위에 돌을 얹어놓았으며, 아직도 그 돌이 아라시토상을 모신 사당 주변에 있다고 하며 보여주기도 한다.

이 사당의 관리는 인근에 거주하는 가미테(上手氏)씨가 하고 있는데, 그의 말을 빌리면 사당 안에는 명치초기에 만들어진 목상의 신체가 모셔졌으나, 유감스럽게도 1988년에 도난을 당하여 현재에는 니노미야쵸(二宮町) 탐보회(探寶會)의 협력으로 미야우치 켄이치(宮内謙一)씨가 도자기로 제작한 신상이 모셔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이 사당 앞에 바로 길이 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서서 참배하기 힘들 정도로 공간이 없는데, 앞으로 이를 확장하여 사람들이 참배하기 좋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대가야국의 왕자 쓰누가아라시토는 이와미지역의 이이다와 오오타 마을에서는 중요한 농경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것이다.

4. 고구려와 백제계의 신사와 사원

유감스럽게도 시마네에는 고구려와 백제계의 신사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아마도 이것은 이 지역이 우리의 동해안 중 남부지역을 향해 있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동해안의 북부지역을 차지한 고구려 및 서해안을 끼고 발달한 백제와는 교류하기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고구려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사가 있다. 그것은 다른 아난 현청 소재지인 마츠에시(松江市) 오니와쵸(大庭町)에 위치한 카모스

신사(神魂神社)이다.

이 신사의 이름을 신혼(神魂)이라고 쓰고 “카모스”라고 읽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어있다. 첫째로는 아메노호히(天穗日命)가 하늘에서 이곳으로 내려와 신목 또는 바위에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라는 두 명의 신을 모신 곳을 칸마스(神坐所)라 하는데, 이것이 훗날 카모스가 되었다는 설이다. 둘째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천지를 창조할 때 처음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는 고사에서 그들을 칸무수비(神縁結)의 대신이라고 한 것이 카모스가 되었다는 설이다. 그와 관련하여 당초부터 이곳에 칸무수비(神皇産靈神)를 모셨기 때문에 카모스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한편 이를 한국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령 일본 역사학자 카도와키 테이지(門脇禎二)씨는 카모스는 고대 한국의 평양 지방에 있었던 주술적인 민간신앙의 하나로 곰을 나타내는 “코모(熊)”와 영혼을 나타내는 “스(靈)”에서 비롯된 시조령신앙(始祖靈信仰)이라고 해석했다.³²⁾ 이에 비해 전호천은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서 “해(解)”의 옛 발음은 “카”란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고구려 건국신화에 나타난 천제의 아들 해모수(解慕漱)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았다.³³⁾ 이를 계승한 한국의 역사학자 이병로도 이 신사는 고구려신화를 질계 깔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전호천의 해석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이 카모스를 초대 일본 천황가의 계보를 만들 때 일본의 신으로 이용했다고 보았다.³⁴⁾ 이처럼 카모스 신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카모스를 해모수로 해석하는 데는 선뜻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신사는 이즈모노구니노미야츠코가(出雲國造家)의 선조를 모신 곳이다. 본전 건물은 다이샤츠클리(大社造) 형식으로 지은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현재 일본국보로 지정되어있다. 그

32) 門脇禎二(1986) 『日本海域の古代史』 東京大学出版会、p.996.

33) 全浩天(1989) 『朝鮮からみた古代日本』 未來社、p.135.

34) 이병로(2002) 『高句麗와 倭의 文化交流 - 日本의 남아있는 遺蹟, 遺物을 中心으로 -』 『고구려발해연구(14)』 고구려발해학회, p.205.

리고 이 신사는 고대 이즈모의 행정관청인 국부(國府)가 있었던 곳에 있다. 즉, 고대 이즈모지역의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신사의 「유서서」에 의하면 아메노호히(天穗日命)가 하늘에서 이 지역에 내려와 창건된 것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전승과 건물의 유구성 그리고 신사의 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회식』 및 『풍토기』에 이 신사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이 신사가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208년(承元2)의 가마쿠라 쇼군(鎌倉將軍)이 내린 「하문(下文)」이다. 따라서 실제의 창건은 헤이안(平安) 시대 중기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이미 고구려라는 국가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럼에도 이 신사를 고구려의 시조인 해모수를 모신 고구려계 신사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즉, 카모스는 고구려 해모수가 아닌 것이다.

한편 시마네에서 백제계라고 표방하는 신사는 없다. 그러나 백제에서 건너온 불상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다는 불교사원이 두 군데나 있다. 비록 신사는 아니지만 이를 소개하면, 오오다시의 쿠테쵸(久手町)에 있는 관음사(觀音寺)와 하원사(河元寺)이다. 이곳에 백제 불상이 모셔지게 된 이유에 대해 관음사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옛날 어느 어부의 꿈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나는 멀리 백제국에서 이곳으로 와서 지금 바다 밑에서 해초와 함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원컨대 나를 육지를 끌어올려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하라. 나는 필시 이곳 중생들과 깊은 인연이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 말라.”고 했다. 잠에서 깨어난 어부가 바다 속 깊이 헤엄쳐 들어가 보니 저쪽에서 빛나는 물체가 있었다. 그리하여 친구들을 불러 같이 그곳으로 들어가 그 물체를 건져 올려보니 관음보살상이었다. 불상의 좌대에 「백제」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어 그곳을 백제라 칭하게 되었고, 또 그 불상을 모신 이 절의 당호도 백제산(百濟山)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음사의 본당 안쪽에는 백제산이라는 액자가 크게 걸려 있다.

이에 비해 하원사 측의 백제불상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즉, 옛날 하네호(波根湖)는 풍부한 양의 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부근에 사는 어느 날 유서 깊은 집안사람의 꿈에 “나는 야나세(柳瀨) 지역과 인연을 맺기 위하여 백제에서 하네호까지 흘러왔다. 바

다에서 나를 빨리 건져내고, 33년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개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라.”라는 예고를 받았다. 그리하여 곧 어
부들을 불러 모아서 망을 쳤더니 과연 관음보살상이 건져졌기 때문
에 임시의 건물을 밭에다 지어 안치했으니 이곳이 바로 관음전이
며, 그 임시건물이 지금의 하원사가 되었다고 한다.³⁵⁾

이상에서 보듯이 두 사찰의 백제불상의 유래 이야기는 대동소이
하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백제불상이 바다를 통해 직접
백제에서 이와미 지역으로 전래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앞에서도 언
급한 바와 같이 해류 상으로 백제에서 시마네로 표류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것은 백제에서 일본에 상륙한 백제인들
이 다시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로는 이들 사원이 있는 인근지역인 도리이초(鳥井町)에는 백제라는
마을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전승에 의하면 이곳은 신라에서 이타케루의 일행이 상륙
한 곳이라고 하며, 마치 백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있지
만,³⁶⁾ 실제로 향토사가들에 의하면 이곳의 백제란 지명은 7세기경
백제인들이 집단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생겨난 지명이며 또 이곳
에 횡혈식고분(橫穴式古墳)은 이들이 남긴 유적이라고 한다. 이들
은 이곳과 관음사와 하원사가 있는 쿠데초에도 거주하며 철(사철)
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생각할 때
관음사와 하원사가 모시고 있는 불상이 백제의 것이라면 이들에 의
해 전래되었거나 아니면 이들의 힘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마네의 백제불상은 백제와의 관계도 있었음
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물임에 틀림없다.

35) 酒井董美外 1人(1980) 『出雲. 石見の伝説』 角川書店、p.69.

36) 成炳禧(1997) 『大田市五十猛町の地名考』 『古代文化研究』 島根縣古代文化セン
ター、p.35.

5.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시마네현에는 한국계 신사가 많이 분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라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백제와 고구려의 자취는 매우 약한 반면 가라와 가야계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이다. 백제의 경우 불상과 불교사원 그리고 지명을 통하여 그들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지만 신사는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았다. 그에 비해 고구려는 카모스신사가 이름에서 보듯이 해모수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그것만으로는 고구려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시마네현에 있어서 고구려계 신사는 백제와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가라계와 가야계는 가라구리, 가라가마, 가라구니, 가라메, 가라구니이타테, 가야사, 아다가야, 히가야, 오오이히코노미코 토라는 이름을 가진 신사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즐비하게 남아있다. 특히 가야계에서는 아라가야계와 대가야계로 주류를 차지한 점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가라와 가야계의 흔적이 강한 한편 백제와 고구려의 흔적이 약한 것은 시마네가 동해안 남부를 마주하고 있는 지형적인 특징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의도된 국가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둘째는 가야계의 이주경로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가라계의 아타테와 대가야계의 쓰누가아라시토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타테는 본시 규슈 북부 이토국의 세력이었다. 이들은 동진을 하여 시모노세키 일대에 세력을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동진하여 시마네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 그 흔적이 가라구니이타테신사의 분포이다. 이와 같은 이동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가야국의 왕자 쓰누가아라시토의 이주경로도 마찬가지이다. 그도 처음에는 한반도에서 시모노세키로 갔으나, 그곳의 지배자와 마음이 맞지 않아, 시마네의 코오즈시를 거쳐 와카사의 쓰루가에 정착했던 것이다. 그가 시마네를 경유한 것이 코오즈시의 아라시토상과 오오이히코노미코토신사를 통하여 증명이 된 셈이다.

이처럼 가야계의 시마네 이주는 해상을 통한 직접적인 이주가 아닌 일단 규슈 북부 또는 시모노세키 지역에 도착한 연후에 이곳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을 가야계의 신사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신사에 있어서 제신의 이름이 불분명하면 일본의 신인 스사노오로 통합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구체성을 가지지 않고 막연히 한반도의 남부만을 나타내는 가라계 신사에게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들의 대부분은 '가라'라는 신사명에 출신의 흔적만 남긴 채 신명은 모두 스사노오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같은 가라계 또는 가야계라 할지라도 제신의 이름을 구체화하여 다키키히메, 쓰누가아라시토, 이타테와 같이 고유의 이름을 남긴 경우에는 스사노오에 편입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이름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시마네 현의 한국계 신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계 신사가 시마네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일본 전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존재양태는 물론 지역마다 계통과 의미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사를 통한 한일 양국의 관계를 규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도윤(1997) 『고령임나와 일본교류연구』 가야문화연구실, p.123.
 김사엽(1991) 「北陸의 韓문화」 『일본학(10)』 동국대일본학연구소, pp.232-233.
 金秀明(2011) 「島根のなかの朝鮮文化について」 『韓日語文論集(15)』 부산외대, p.153.
 노성환(2014) 『일본신화에 나타난 신라인의 전승』 민속원, pp.17-30.
 노성환(2014) 「일본 시마네의 지역전승을 통해서 본 신라」 『동북아문화연구(3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439-455.
 이병로(2002) 「高句麗와 倭의 文化交流 - 日本의 남아있는 遺蹟·遺物을 中心으로 -」 『고구려발해연구(14)』 고구려발해학회, p.205.
 정효운(2002) 「日本の中の加耶文化」 『일본학보(51)』 한국일본학회, p.533.
 石塚尊俊(2000) 「韓国伊太氏神社について」 『日本の神々 - 神社と聖地(7) -』 <谷川健一編>, 白水社, p.48.
 上田正昭(1998) 『論究・古代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pp.201-202.

- 宇治谷孟訳(1990)『日本書紀(上)』講談社、pp.135-137.
- 江原護(2000)『出雲の神々に魅せられて-出雲の古代を歩く-』マイブックス社、pp.23-32.
- 萩原千鶴訳(1999)『出雲風土記』講談社、p.65、p.226.
- 加藤義成(1987)『修訂 出雲国風土記参究』今井書店、p.169、p.361.
- 門脇禎二(1986)『日本海域の古代史』東京大学出版会、p.996.
- 酒井董美・萩坂昇(1980)『出雲. 石見の伝説』角川書店、p.69.
- 瀧音能之(1995)『出雲世界と古代の山陰』名著出版、pp.303-305.
- 瀧音能之(2014)『古代出雲と朝鮮半島における交流の實態-神社を手がかりとして-』『東北亞歴史(7)』東北亞歴史財團、p.4、p.7、p.9.
- 谷川健一編(2000)『日本の神々-神社と聖地(7)-』〈谷川健一編〉白水社、p.47、p.48.
- 三上鎮博(1974)『山陰沿岸の漂着文化』『東アジアの古代文化(秋)』大和書房、p.87.
- 山藤朝之(2012)『二宮の歴史と昔話』個人出版、pp.32-33.
- 金達壽(1983)『日本の中の朝鮮文化(7)-出雲, 隠岐, 石見(島根県)<2>-』『季刊 三千里(36)』三千里社、pp.246-247.
- 金達壽(1984)『日本の中の朝鮮文化(8)-出雲, 隠岐, 石見(島根県)<3>-』『季刊 三千里(37)』三千里社、p.245.
- 成炳禧(1997)『大田市五十猛町の地名考』『古代文化研究』島根県古代文化センター、p.35.
- 全浩天(1989)『朝鮮からみた古代日本』未来社、p.135.
- 全浩天(1995)『古代出雲における高句麗 新羅文化の重層性』『日本古代の伝承と東アジア』吉川弘文館、p.371.
- Anders CARLLQVIST(2009)『古代出雲と朝鮮半島-神話で描いている長距離貿易-』『岩手県立大学盛岡短期大学部研究論集(11)』岩手県立大学盛岡短期大学、p.18.

REFERENCES

- Kim Do Yun(1997)『Research koryungimna exchanges with Japan』Kaya Munhwa Yoengusil, p.123.
- Kim Sa Yup(1991)『Korea culture in Hokuriku Japan』『Japanese studies (10)』Japan Institutes of Dongguk University, pp.232-233.
- Kim Su Myung (2011)『Korean culture within the Shimane』『Hanil Omun Nonnzip(15)』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153.
- No Sung Hwan(2014)『Silla in the Japanese myth』Minsokwon, pp.17-30.
- No Sung Hwan(2014)『Silla in Transmission of Shimane Japan』『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38)』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pp.439-455.
- Lee Byung Ro(2002)『Cultural exchange of Koguryo-』『Koguryo Balhae Youngu(14)』Association of Koguryo Balhae, p.205.
- Jung Hyo Un(2002)『Kaya culture in Japan』『Ilbonhakbo(51)』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p.533.

- Isitsuka Takatoshi(2000) 『About Karakuniitate shrine, 『The gods of Japan- shrine and Holy Land (7)-』 <Tanikawa Kenichi>, Hakusuisya, p.48.
- Ueda Masaaki(1998) 『Discuss thoroughly. -East Asia and ancient history』 Iwanami Syoten, pp.201-202.
- Uzitati Tsutomu(1990) 『Nihonsyoki(1)』 Kodansya, pp.135-137.
- Ehara Mamoru(2000) 『Walking the ancient Izumo - Fascinated Izumonokami-』 Maibuksya, pp.23-32.
- Ogihara Chizuru(1999) 『Izumohutouki』 Kodansya, p.65, p.226.
- Kato Yoshinari(1987) A study of Izumohutouki』 Imai Syoten, p.169, p.361.
- Kadowaki Teizi(1986) 『Ancient history of Japan sea』 Tokyo University press, p.996.
- Sakai Tadayoshi(1980) 『Legend of Izumo.Iwami』 Kadokawa Syoten, p.69.
- Takioto Yoshiyuki(1995) 『Ancient Sanin and Izumo』 Meichosyutpan, pp.303-305.
- Takioto Yoshiyuki(2010) 『Actual situation of exchanges in ancient Izumo and Korea』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in Northeast Asia』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4, p.7, p.9.
- Mikami Sizuhiro(1974) 『Shipwrecked culture of Sanin coast』 『Ancient culture of East Asia (Fall)』 Yamatosyobo, p.87.
- Yamahuzi Asayuki(2012) 『Old tale and History Ninomiya』 Kozinsyutpan, pp.32-33.
- Kim Dal Su(1983) 『Korean culture in Japan (7) - Izumo, Oki, Iwami <2>-』 『Kikansansenri(36)』 Sansenrisya, pp.246-247.
- Kim Dal Su(1984) 『Korean culture in Japan (8) - Izumo, Oki, Iwami <3>-』 『Kikansansenri(37)』 Sansenrisya, p.245.
- Sung Byung He(1997) 『A study of Isotake-cho』 『Research of Ancient culture』 Shimaneken Kodaibunka center, p.35.
- Zyun Ho Chun(1989) 『Ancient of Japan and Korea』 Miraisya, p.135.
- Zyun Ho Chun(1995) 『The Koguryo Silla culture in ancient Izumo』 『East Asia and the tradition of ancient Japan』 Yoshikawakobunkan, p.371.
- Anders CARLLQVIST(2009) 『Long-distance trade in mythology - ancient Izumo- and Korean Peninsula-』 『Journal of Research Iwatekenritsu Morioka Junior College (11)』, Iwatekenritsu Morioka Junior College, p.18.

334 日本語文學 第 65 輯

성 명(한 글) : 노 성 환

(한 자) : 魯 成 煥

(영 문) : No, Sung-Hwan

논문영어제목 : A Study of the Korean Shrines in Shimane Prefecture

소 속 : 울산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E-mail : nosh1@hanmail.net

투 고 일 : 2014년 3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4년 4월 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4월 29일